

국어교육 질적 연구에서의 내러티브 분석 방법 탐구

박혜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이 논문은 제56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4.4.12.)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발표 원고에 대해 토론해 주신 서혁 교수님과 심사 과정에서 논문의 보완에 유익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I. 머리말
- II. 내러티브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 III. 내러티브 분석의 실제
- IV. 맺음말

I. 머리말

국어교육학에서 질적 연구 방법 및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고 확장되어 온 지 10여년이 넘었다.¹ 국어교육 연구의 현상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체계화하는 일은 학문으로서 국어교육학이 성숙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연구 내용을 정교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 영역을 탐색하는 데 전초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국어교육의 학문적 지평 확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80년대 중반, 학문 성립 초기의 국어교육학 연구는 주로 국문학과 국어학에 기반을 둔 문헌 연구의 성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후 국어교육학은 ‘수행적 학문’(김대행, 2005)으로서의 정체성이 강조되면서, 학교 현장에 구체적 방법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0

1 1990년대 후반 이후, 국어교육 질적 연구 방법 및 방법론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연구들(정현선, 1998; 정재찬, 2001; 서현석, 2002 등)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년대 이후 국어교육에 등장한 양적 연구 방법론과 질적 연구 방법론, 그리고 최근 두 방법의 상보적 활용을 고민한 ‘혼종 연구(mixed methods)’의 등장은, ‘이론과 실제의 길항 관계’(박인기, 2005) 속에 위치한 국어교육학이 ‘이론화 전략뿐 아니라 수요화 전략’(노명완 외, 2012)까지도 고려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한철우 외(2012)와 서혁(2013)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국어교육에서 연구 방법론의 다양화가 곧 연구 방법론의 정치함과 질 관리를 담보하는가의 문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확장된 연구 관심과 다양화된 방법론은 국어교육학이 학문적 지평의 확장과 융합을 위해 노력을 거듭해 왔으며 현재도 그러한 과정 중에 있음을 시사한다.

질적 연구는 ‘질적 감식안’(Eisner, 1997)을 지닌 연구자가 현상을 내밀한 시선으로 포착하여 기술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대단위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추상적 가정을 확인하여 일반적인 이해를 도출하고자 하는 양적 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는 현상의 다면성을 깊이 있게 인식하여 통찰적 이해와 해석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미처 발견되지 못한 현상의 이면을 발견하여 새로운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질적 연구 방법이 가지는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자는 익숙한 관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이미 아는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대화를 통해 현상에 대한 의미를 지속적으로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태도를 견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질적 연구는 국어교육 현장에서 실천 주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기존의 당연시되는 가정을 점검하고, 새로운 국어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에 역할 할 수 있다. 또한, 현상에 대한 실제적 ‘기술(description)’ 없이 선언적 ‘처방(prescription)’에 의존하는 거대 담론으로서의 국어교육학 이론을 실제와 적극적으로 소통시키는 방법일 수 있다.

그동안 국어교육에서 질적 연구는 현상의 실제적 양태를 탐색하고 이론에 대한 질적 성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정현선(1998)은 문화기술지 사례 연구를 통해 국어교육의 한 분야로 청소년 미디어 교육의 질

적 연구 방법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정재찬(2001)은 교육사회학적 관점에서 국어교육 실행을 연구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과 의의를 밝히고, 이에 바탕하여 국어교육적 수업 비평 방안을 탐구하였다(정재찬, 2006). 국어 교사의 변화와 성장의 체험에 관한 엄훈(2004)의 연구, 국어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사례를 분석한 정혜승(2002)의 연구, 내러티브를 통해 초임 교사들의 성장과 전문성 신장 방안을 탐구한 최인자(2006)의 연구 등은 질적 연구 방법을 국어교육 연구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한 구체적인 예이다.

국어교육학은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어교육 현장을 뒷받침하고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는 학문이다. 이는 국어교육학이 이론 실행을 위한 구체적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을 이끌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장 주체들의 중층적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는 열린 ‘귀’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질적 연구 방법 가운데 내러티브 연구는 국어교육 실천의 주체로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국어교육에서의 경험과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탐구하여, 국어교육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유의미한 연구 방법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러티브 탐구를 위시한 질적 연구 방법론들의 국어교육적 적용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국어교육 연구 방법이 명료하게 정리되고 체계화되지 못함으로서 연구자들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방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이다(한철우 외, 2012).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내실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우며 연구 성과 자체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서혁, 2013),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성숙을 위해서는 질적 연구 방법의 체계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연구 방법의 지나친 주관성은 연구 주제와 논리 면에서 질적 연구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연구자가 양적 연구 방법으로 대체하거나 양적 연구와 병행을 시도하게 만드는 연구 풍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학문 공동체 내에서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일정 정도의 체계화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연구 초심자들이 연구 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연구에 적용해 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Huberman &

Miles, 1994; Riessman, 2008)은 현재 우리 국어교육이 처한 현실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국어교육 질적 연구 방법의 체계화를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내러티브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과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자료 분석의 실제에 적용한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내러티브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1. 내러티브의 개념과 특성

학제적인 성격을 갖는 내러티브 연구의 속성상, 내러티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그 개념역도 넓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Riessman & Speedy, 2007). 내러티브에 대한 정의는 플롯을 가진 모든 이야기를 내러티브로 보는 관점(임병권, 1996), 역사 서술의 한 형태로서 사건과 경험의 연대기를 내러티브로 이해하는 관점(양호환, 1998), 응집성을 보이는 담화의 대체적 형태를 모두 내러티브로 보는 관점(조지형, 1998), 서사학의 내러티브 정의에 근거하여 시간적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 플롯으로 구성된 것을 내러티브로 보는 관점(한승희, 2000)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내러티브 학자 포킹혼(Polkinghorne, 1988)은 의미를 가진 완결된 하나의 이야기를 내러티브라고 보고, 일련의 사건들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단순하게 나열되는 연대기와 내러티브를 차별화하고자 하였다. 클랜딘인과 코넬리(Clanndinin & Connelly, 1990)는 이야기와 내러티브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이야기가 개별 상황에서 일어나는 소품문(小品文, vignette)에 가깝다면, 내러티브²는

2 본고에서는 이러한 용어 정의를 종합하여, 내러티브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화 중심의 짧은 이야기,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나 인물의 생애사, 인간의 경험을 유의미하게 조직한 응집성 있는 담화와 그에 관여하는 사고 양식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보다 긴 시간 속에 걸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경험과 성찰의 구성체라고 정의하였다.

국어교육에서 내러티브는 매우 친근한 개념이다. ‘이야기’와 ‘서사’라는 말로 더 익숙한 내러티브는 초·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국어 시간에 다루는 내러티브는 주로 완성된 형태의 언어 결과물로서 그 내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는 생성의 과정에 있는 중간물로서 내러티브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주제뿐만 아니라, 화자가 ‘어떻게, 왜’ 그러한 것을 말하는지에 관한 내러티브의 형식과 조직의 문제도 중요하게 다룬다. 사회과학 연구의 한 방법론으로서 내러티브 연구는 내러티브 화자와 내러티브 생성에 관여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질적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내러티브의 특성은 무엇인가.

내러티브는 우리의 경험을 세상과 소통 가능하도록 만드는 가장 자연스럽고 친근한 방식이다. 내러티브 이전, 경험은 파편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우리 안에 존재한다. 그러한 경험이 적절한 언어를 만나 의미 있는 표현으로 배열되어 이야기로 표상된 것이 내러티브이다. 언어를 통해 세상 밖에 나올 때, 경험은 우리의 ‘해석(interpretation)’을 거쳐 재배열된다. 내러티브의 대표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인 플롯은 불확실하고 부유하는 상태로 존재하던 경험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조직하여 말하는 해석의 한 방식이다. “학교장이 학생들을 징계했다.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했다.”와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했다. 학교장이 학생들을 징계했다.”³는 어떤 일이 먼저 배열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인과 관계가 달라진다. 질적 연구자는 참여자가 경험의 파편들을 연결 짓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연구자는 심

3 한승희(1997)에서는 “주식시장이 붕괴했다. 내각이 총사퇴했다.” “내각이 총사퇴했다. 주식시장이 붕괴했다.”로 내러티브 플롯의 특성을 설명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예시를 교육 상황과 관련되는 것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층 면담을 통해 참여자가 경험을 해석하여 내러티브로 엮어 낼 수 있도록 돕게 되며, 이때 내러티브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대화를 통해 구성되는 상호작용의 생성물로 이해되기도 한다.

내러티브의 세계는 사실에 따른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일관성을 위반하려는 경향 즉, 비논리적 의외성과 임의성이 이야기의 추진력으로 작용한다(한승희, 1997). 이러한 내러티브의 특성은 사람들이 내러티브로부터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되는데, 내러티브적 사고 양식을 주창했던 제로미 브루너는 이를 ‘규범 가운데 이탈을 함축(Bruner, 1996: 139)’ 하는 내러티브의 속성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질적 연구는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참여자가 말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 자료인 내러티브에 관심이 있다. 또, 왜 참여자가 그것을 말할 거리라고 생각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보편적 이야기 구조가 화자의 상황과 맥락에서 어떤 새로움을 갖게 되는지를 분석한다. 그 유명한 예시, “왕비가 죽었다. 왕이 죽었다.”에서처럼 내러티브는 ‘왕비가 죽었고, 왕이 죽었다’는 명백한 사실 이외에도 ‘왕비가 죽은 슬픔 때문에 왕이 죽었을까?’와 같은 해석의 임의성을 숨겨 사건의 의미에 관한 결말을 열어 둔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는 이야기의 보편적 줄거리 안에 숨어 있는 연구 참여자의 주체적 관점을 목도(目睹)하고, 객관적 사실과 그에 대한 주체적 의미 해석이라는 ‘복화(腹話, ventriloquism)’(Bakhtin, 1981: 299)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한다.

또한, 내러티브는 주체의 ‘되어 감(becoming)’, 즉 성장에 대한 이야기이다. 내러티브 연구자 맥 아담스(McAdams, 2006: 3)는 “우리는 모두 스토리텔러이며,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 그 자체이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는 곧 우리 자신의 부분이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내러티브 화자는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맥락 속에서 다시 말함으로써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다시 미래 경험을 위한 새로운 바탕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내러티브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연결된 성장의 이야기가 된다. 내러티브 탐구를 교사 전문성 교육에 활용한 클랜디닌과 코넬리

(Clandinin & Connelly, 1998)는 교사들은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학생 지도의 실천적 경험을 말하고(tell), 다시 말함(retell)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살고(live) 다시 사는(relive) 의미의 재구성 과정을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축적하며 성장한다고 설명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내러티브를 분석하여 참여자의 정체성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는 성장의 궤적을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내러티브에는 화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화자와 관련된 타인들의 이야기가 함께 얹혀 있다는 특성이 있다. 클랜딘닌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0)는 우리의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와 타인의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얹혀 있는 사슬의 한가운데 있으며, 이것이 내러티브 탐구가 가지는 기본 가정이며 의의라고 보았다. 문화심리학자 허먼과 챔폰은 내러티브를 개인과 사회의 중요한 연결 고리로 보고, 바흐찐의 용어를 빌어 ‘다성적 소설(polyphonic novel)’(Hermans & Kempen, 1993: 82)에 비유하며, 내러티브라는 창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허먼과 챔폰은 내러티브에서 화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지만, 그 목소리에는 다양한 타인의 목소리가 동시 발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마치 소설에서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소설은 작가의 주제 의식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내러티브에 담겨 있는 개인의 경험은 결국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는 내러티브를 통해 한 개인의 경험을 사회적 관계 및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2. 질적 연구에서 내러티브 분석의 층위

질적 연구에서 내러티브 분석은 두 가지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내러티브가 자료 수집과 분석의 기본 단위로 사용되는 경우이고, 또 다른 층

위는 참여자의 내러티브에 연구자의 해석이 더해져 연구자 내러티브로 재구성되는 경우이다. 포킹혼(Polkinghorne, 1995)은 내러티브의 두 층위를 ① 내러티브들에 대한 분석(analysis of narratives)과 ②내러티브 분석(narrative analysis)으로 분류하였다. 전자가 주로 개별적인 내러티브의 내용과 주제를 코딩하여 공통 주제를 도출하고 기술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후자는 분석된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를 연구자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재구성한 내러티브를 생산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후자인 ‘내러티브 분석’은 방법이자 방법론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되어 결국 질적 연구 방법론의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내러티브는 질적 연구에서 대상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특정 경험에 대한 언어적 표상으로서 내러티브에는 연구 참여자의 관점과 평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내러티브는 사례 연구나 문화기술지연구, 담화 분석 연구, 실천 연구 등 질적 연구의 광범위한 분야⁴에서 분석의 중요한 단위로 쓰인다. 질적 연구에서는 개인 및 그룹 면담과 참여·비참여 관찰, 서류와 사진 및 동영상 확보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내러티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이 경우가 앞서 논의한 ‘내러티브들에 대한 분석’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국어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를 문화기술지의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가정하자. 연구자는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의 학교생활을 관찰하고 교육과정과 실행에 대한 경험과 성찰을 주제로 심층 면담을 진행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연구자의 질문에 답하며 해당되는 경험과 일화를 이야기로 진술하게 된다. 이때, 연구자가 수집된 내러티브들을 분석하여 교육과정 실행과 관련된 귀납적 주제를 도출

4 교육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는 크게 문헌 연구, 면담 연구, 비참여 관찰 연구, 참여 관찰 연구로 분류하는데, 그 하위 영역으로 스무 가지 정도의 연구법이 있다(자세한 내용은 조용환, 1999 참조).

하여 기술한다면, 이는 개별 내러티브들에 대한 분석 방법을 활용한 문화기술지 연구가 된다.

그러나 동일한 주제의 연구를 ‘세 국어 교사의 국어과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로 진행한다면, 이때 내러티브 분석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기본 단위이자 연구 방법이며 연구 방법론으로 ‘내러티브 탐구’와 동의어가 된다. 그리고 연구자는 세 국어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경험을 관찰하고 심층 면담하여 내러티브를 수집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내러티브 생성을 돕는 촉진자이자 대화자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은 국어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자신의 수업에서 교육과정을 실행하였는가에 대한 경험을 떠올려 성찰하고 교육과정을 실행한다는 것의 의미를 만들어 가게 된다. 이때, 교사의 내러티브는 교육과정 실행 경험의 의미를 찾기 위한 방법이자 탐구 현상 그 자체가 된다. 또한, 교사 내러티브라는 ‘현장 텍스트(field text)’는 이를 해석한 연구자의 내러티브인 ‘연구 텍스트(research text)’로 재구성된다(Clandinin & Connelly, 2000).

III. 내러티브 분석의 실제

1. 내러티브 분석의 유형과 방법

일찍이 교육에 있어 실제적 경험의 중요성을 역설한 듀이는 “분석되지 않은 경험은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Dewey, 1938)라는 말을 남겨 경험이 교육적으로 그 본연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분석’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내러티브 연구에서 분석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에서 자료를 ‘분석’한다고 하면, 자료 수집 이후의 과정으로 연구자의 자료 기술 및 해석 단계를 통칭하는 경향이 있다(조용환, 1999).

그런데 질적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분석(分析, analysis)’이라는 말보다 ‘기술(記述, description)’과 ‘해석(解釋, interpretation)’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Patton, 2002). 이는 그동안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에 대한 대안적 연구 방법으로서 인식되어 왔고, 의사소통의 편의성을 위해 양적 연구 용어인 ‘분석’을 기술과 해석에 대한 유의어적 성격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조용환, 1999). 물론 질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의 단계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하는 연구자의 관점, 즉 ‘선택’과 ‘배제’의 문제가 늘 관여한다는 점에서 자료 수집 단계에서도 분석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일반적 관점을 유지할 때, 자료의 수집 이후, 즉 연구자가 참여자의 내러티브를 선택하여 ‘기술’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석’하여 새로운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을 본격적 의미에서 분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월코트와 같은 연구자는 질적 연구에서 분석 단계의 모호함을 극복하고 질적 연구 방법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 과정을 ‘기술, 분석, 해석’의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그는 기술은 보이는 것을 보도록 하는 것이고, 분석은 아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며, 해석은 이해한 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요리에 비유하면, 기술은 익히지 않은 원 재료에 가까운 상태이고, 분석은 반조리 상태이며, 해석은 요리된 상태와 유사한 것이다(Walcott, 1994, 조용환 1999에서 재인용).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에도 연구자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수집된 참여자의 내러티브도 ‘원 재료’가 아닌 분석의 과정을 거친 ‘손질된 재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월코트의 ‘기술, 분석, 해석’에서 자료를 ‘원 재료, 반조리 상태, 요리된 상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연구자의 관점과 해석이 ‘자료’에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하는 정도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질적 연구는 자료 수집과 분석의 연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순환성과 역동성을 중시한다. 이런 이유로 질적 연구로서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양적 연구 방법과 같이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방식으로 전형화

하는 것은 합의되기 어렵다. 질적 연구의 각 주제와 이론적 배경에 가장 어울리는 적절한 분석 방법은 연구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적 연구가 연구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체계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는 있다.

내러티브 연구자인 리스만(Riessman, 2008)은 학문으로서 내러티브가 논의의 지속을 위한 능동적인 ‘과정(process)’에 있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내러티브 분석 방법에 대한 일시적 ‘합의물(product)’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리스만은 코르타찌(Cortazzi, 2001)와 미실러(Mishler, 1995)의 내러티브 유형화를 차용하여 <표 1>에서와 같이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체계화하였다.

표 1. 리스만의 내러티브 분석 유형과 방법

| 유형 | 분석 방법 |
|---------------------------------------------------|-----------------------------------------------------------------------------------------------------------------------------------|
| 주제 중심 분석법 (Thematic analysis) | - 말한(told) 결과물로서 내러티브의 내용 및 주제에 대한 분석 - 화자가 무엇(what)을 말하였는가에 관심 - 다양하고 많은 수의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공통 주제를 분석 |
| 구조 중심 분석법 (Systematic analysis) | - 말하고 있는(telling) 생성물로서 내러티브의 구조에 대한 분석 - 어떻게(how)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관심 - 등장인물, 사건, 배경, 플롯을 미시적으로 분석 |
| 상호작용적 분석법 ⁵⁾ (Interactive analysis) | - 화자와 청자, 연구자와 참여자가 대화 과정을 통해 생성하는 내러티브에 관심 - 내러티브에 나타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가, 누구의 관점인가를 분석 -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어떤 의미이며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분석 |

주제 중심 분석법은 생성중인 상태의 내러티브에서보다는 이미 말해진 결과물로서의 내러티브의 내용에 대한 분석에 강조점을 둔다. 이 방법은 다

- 5 상호작용적 분석법의 확장된 형태로 수행적 분석법(performative analysis)을 두기도 한다.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청자에게 어떻게 인식되기를 원하는가, 즉 화자가 내러티브 상황에 자신을 어떻게 위치 지우는가(positioning)에 따라 내러티브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내러티브 특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방법을 수행적 분석법이라고 한다. 주로 내러티브 화자의 정체성 연구에 이용된다.

양한 이야기의 사례나 짧은 이야기를 수집하여 공통된 주제나 내용을 귀납적으로 파악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주제 중심 분석법은 많은 수의 내러티브를 분석하는 데 주로 활용되며, 현상에 대한 설명을 위한 이론화 또는 이미 개발된 이론의 상세화에 유용하다. 또한 분석의 주된 관심사가 내러티브의 구조보다는 내용과 주제에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 언어 구조의 파악이나 내러티브가 생성되는 과정 혹은 발화의 맥락과 상황, 그리고 제도나 문화적 담론이 내러티브 생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같은 내러티브 연구에는 사용되기 어렵다. 이 분석법은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공통 주제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통 주제에 포함되지 않으나 의미 있는 내러티브들이 분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를 가진다.

구조 중심 분석법은 생성 중인 내러티브, 즉 발화되고 있는 내러티브에 관심을 두는 분석법이다. 내러티브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만 언어 구조물로서 내러티브에 대한 관심이 내용과 의미 못지않게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화자가 어떤 특정 내러티브를 선택하는지, 그러한 선택이 어떻게 내러티브를 청자에게 보다 설득력 있게 만드는지에 관심을 두고 내러티브의 언어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한다. 라보브와 워레츠키(Labov & Waletzky, 1967)가 개발한 내러티브 분석법이 대표적인 구조중심 분석법에 해당하며, 이후 제임스 폴 지(Gee, 2000) 등 사회언어학자들이 주로 사용한 미시적 담화 분석법으로 발전하였다(Riessman, 2008; Riessman & Speedy, 2007). 이 방법은 많은 수의 내러티브를 통찰력 있게 분석하기보다는 특정 내러티브의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할 때 주로 이용된다. 미시적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사를 시도하는 주제 중심 분석과 달리, 연구자가 전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특정한 내러티브를 선정하여 상세 분석을 한다.

상호작용적 분석법은 내러티브 상황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대화적 과정에 초점을 두어 어떻게 내러티브가 생성되는가의 과정과 결과에 관심을 두는 분석법이다. 내러티브가 특정한 발화 상황과 맥락에서 이루어

진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다양한 대화 참여자의 영향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의 예는 이어지는 내러티브 분석의 실제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세 가지 분석법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두 분석법이 배제되는 상호배타적 관계에 있지는 않다. 연구자의 연구 초점과 논리, 연구 질문에 따라 각각의 분석법은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선택되어 활용될 수 있다. 질적 연구의 특성상 각 유형 간의 경계는 명확히 구분되기보다는 공유되는 지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러티브의 내용과 주제에 집중하여 분석한다고 하여 내러티브의 구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내용과 주제에 집중하면서도 특정 내러티브 분석에는 상호작용적 분석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내러티브 탐구의 저명한 연구자인 뱌머그(Bamberg, 1997, 2004)는 리스만의 분류와 달리, 내러티브 분석을 ‘재현된 경험으로서 내러티브(narrative as representation)’와 화자와 청자의 관계 및 맥락을 고려한 ‘생성물로서 내러티브(narrative as product and process)’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전자는 과거 경험의 표상으로서 이미 발화된 내용의 분석에 집중하는 것으로, 리스만의 분석 유형 가운데 주제 중심 분석법과 공통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후자는 내러티브가 어떻게 생성되는가 하는 발화 상황과 맥락 및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분석의 관심이 있다. 따라서 리스만의 분류 가운데 구조 중심 분석법, 또는 상호작용적 분석법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내러티브를 방법과 방법론에 적용한 클랜드닌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0)는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분석법을 <표 2>와 같이 설명하였다. 이는 내러티브의 시간성, 사회적 상호관련성, 사건이 일어나는 역사적, 문화적, 개인적 상황 특성을 세 가지 축으로 두고 ‘삼차원적 탐구 공간(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에서의 통합적인 내러티브 분석을 제안한 것이다.

표 2. 클랜디닌과 코넬리의 삼차원적 내러티브 분석

| 차원 | 분석의 중점 |
|----------------------------|-------------------------------|
| 시간적 연속성(Continuity) | 경험의 과거, 현재, 미래적 상관성 |
| 개인적·사회적 상호관련성(Interaction) | 연구 참여자 개인과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의 상호관련성 |
| 상황과 맥락(Situation) | 내러티브와 관련된 상황과 맥락 특성 |

2. 상호작용적 분석법의 실제 — 북클럽 내러티브 분석

내러티브 분석의 유형화는 질적 연구 방법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어교육 학문 공동체에서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와 확산, 그리고 심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유형화하는 것은 질적 자료 분석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일종의 ‘틀 지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일은 질적 연구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질적 연구는 현상이 일어나는 맥락과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감환(減還, reduction)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틀에 고정되는 것과 틀의 기계적 적용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자가 내러티브 분석법을 사용할 때에는 연구의 상황과 맥락에 따른 틀에 대한 ‘전용(轉用, appropriation)’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서는 앞서 전개한 내러티브 분석 유형 가운데 국어교육 질적 연구에서 활용이 드물었던 상호작용적 내러티브 분석법의 전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3>은 분석에 사용된 자료⁶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배경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 이주 한국 청소년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북클럽 내러티브연구의 텍스트 구조는 아래 <그림 1>에서와 같이, ‘브라이언의 이야기’와 ‘첸의 이야기’, 그리고 두 이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룬 ‘회상과 스냅사진’의 세 부

6 줄고(박혜영, 2013)에 사용된 자료의 일부를 발췌하여 번역한 것으로, 본고의 연구 목적에 따라 내러티브 분석법에 초점을 두어 해당 부분의 설명과 해석을 재구성·재서술 하였음을 밝힌다.

표 3. 연구 배경 정보

| 구분 | 연구 배경 정보 |
|-------------|---------------------------------------------------------------------------------------------------------------------------------------------------------------------------------------------------------------------|
| 연구 대상 | 미국 이주 한국 고등학생 6명(남: 3명, 여: 3명) |
| 연구 방법 | (각종 자료 수집) 학부모 면담 및 작문 자료 (북클럽 참여 관찰) 총 15회, (심층 면담) 학생당 3-4회 |
| 사용 언어 | 북클럽 내러티브: 영어, 심층 면담: 한국어 |
| 북클럽 교사 | 미국인 교사 1명, 한국인 연구자 1명 |
| 연구 방법 및 방법론 | 내러티브 탐구 |
| 내러티브 분석 유형 | 주제 중심 분석법과 상호작용적 분석법 혼용 |
| 연구 주제 | 미국 이주 한국 청소년의 북클럽 내러티브 탐구 |
| 연구 질문 | 1. 학생들은 북클럽 토의와 심층 면담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떤 내러티브를 말하는가? 2. 학생들은 다른 미국 학생들과 자신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며 자신을 타인화하는 미국 문화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3. 미국의 사회문화적 담화(예: '소수자 모델' 담화, '영원한 이방인' 담화)는 학생들의 정체성 구성과 문식성 실천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두 부분인 ‘브라이언의 이야기’와 ‘첸의 이야기’에는 각 주인공의 내러티브들을 에피소드 중심의 소주제로 엮어 이야기로 재구성한 주제 중심 분석법이 활용되었다. 한편, ‘회상과 스냅사진’ 부분에서는 주인공의 내러티브 구성 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목소리의 정체를 밝히고, 각 목소리들의 소통을 통해 주인공의 내러티브가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적 분석법이 쓰였다. 본고에서는 상호작용적 내러티브 분석법이 사용된 사례를 초점화하기 위해 <그림 1>에서 외곽선 처리된 ‘브라이언의 스냅사진’ 부분의 내용 일부만을 살펴본다. 해당 부분은 학생들이 미국 이주 아시아계 소녀의 정체성 형성을 다룬 캐서린 민의 단편소설 『금발』⁷에 관한 브라이언의 북클럽 내러티브의 일부이다.

7 원문 서지 사항: Katherine Min(1995), “Blond” in the book of “American Eyes: New Asian-American Short Stories for Young Adults” (1995) by Lori Carlson, NY: Random House Publishing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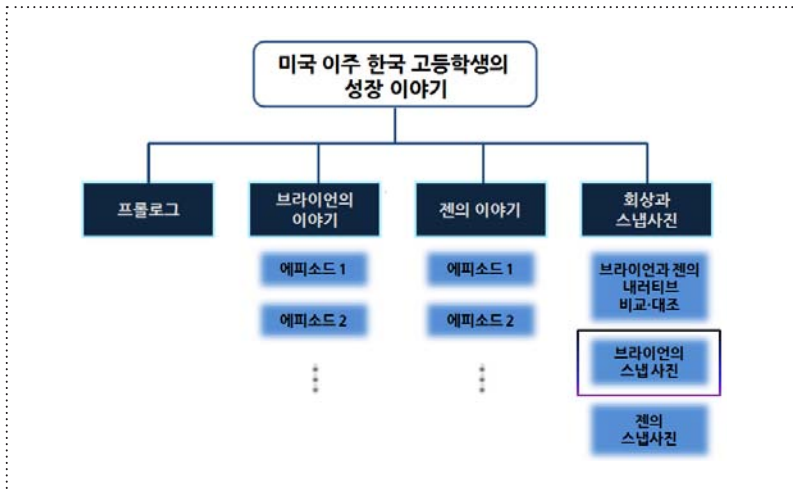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텍스트의 구조

〈그림 2〉는 브라이언이 단편소설 북클럽 내러티브 활동을 통해 사회문화적 담화 융합 과정 속에서 학습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타인과의 대화라는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 내러티브가 생성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리스만의 상호작용적 분석법이 활용되었다. 또한, 브라이언의 내러티브에 담긴 복합적이면서 다양한 관점을 효과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바흐친의 ‘목소리(voice)’⁸(Bakhtin, 1981: 327) 은유가 사용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브라이언의 내러티브에 나타난 목소리들의 주체가 분석되었다. (1)~(6)의 내러티브에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목소리의 주체는 브라이언이다. 그러나 (1)에는 ‘사람들이 ~ 웃기다고 생각할 것’에서와 같이, 이른바 사회문화적 보편 담론을 투영하는 ‘제3의 인물(the third party)’(Bakhtin, 1986: 143)의 목소리가 브라이언 목소리에 공명하고 있음을 알 수

8 “이것은 발화된 개인성, 발화된 의식이다. 목소리의 음색과 배음(倍音, overtone)에는 항상 발화자만의 독특한 의지와 바람이 담겨 있다.”(Bakhtin, 1981: 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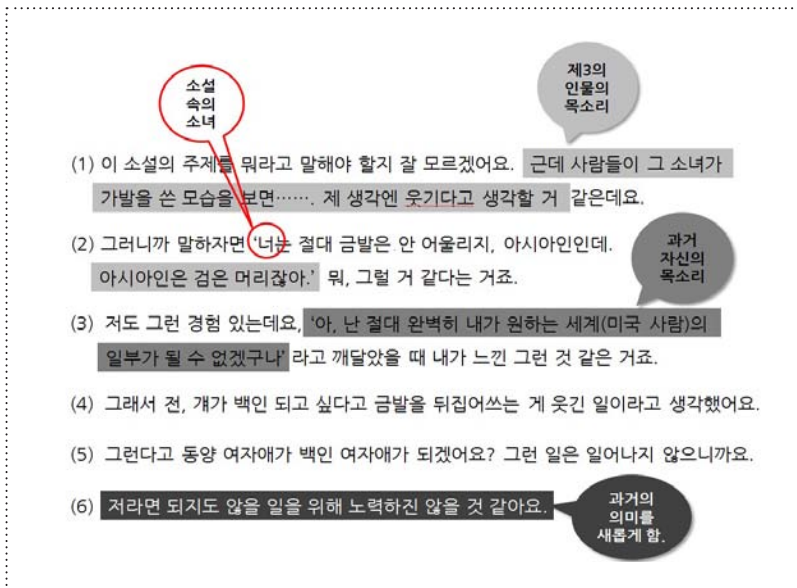


그림 2. 상호작용적 내러티브 분석의 예

있다. 보편 청중으로서 제3의 인물은 (2)의 '아시아인은 (원래) 검은 머리잖아'라는 미국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을 브라이언의 목소리에 복화하여 들려준다. 이외에도 내러티브에서는 브라이언 자신의 과거 목소리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브라이언은 (3)에서 '난 절대 완벽히 내가 원하는 세계의 일부가 될 수 없겠구나'라고 말했던 과거 자신의 목소리를 재생해 낸다. 또한 이것을 (6) '저라면 되지도 않을 일을 위해 노력하진 않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현재적·미래적 의미로 재구성해 내고 있다. <그림 3>은 브라이언의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이와 같은 중층적 목소리들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한편, 목소리들의 주체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브라이언의 내러티브 생성에 관여하는 대화의 중층적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화는 브라이언과 제3의 인물과의 대화이다. (1)에는 '아시아 소녀가 금발 가발을 쓰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브라이언의

1 누구의 목소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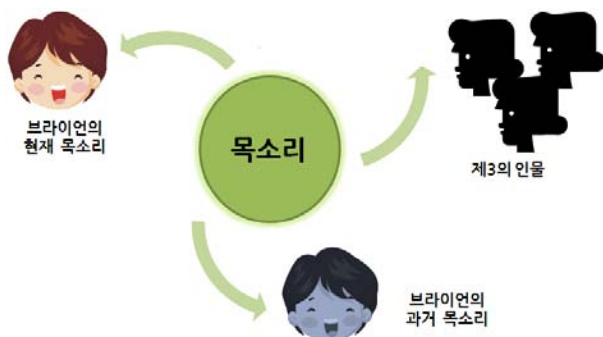


그림 3. 브라이언의 내러티브 속에 등장하는 목소리

자문(自問)과 ‘웃기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자답(自答)이 함께 나타난다. 그런데 브라이언의 자답은 브라이언만의 생각이라기보다 보편적 청중의 생각이 브라이언의 목소리를 통해 융합적으로 발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대화는 브라이언과 소설 속 주인공인 소녀의 대화이다. <그림 2>의 (2)에서 브라이언이 사용한 ‘너’라는 2인칭 주어 표지는 브라이언이 소설 속 소녀를 청중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해 준다. 이러한 발화는 단편소설 읽기와 북클럽 토의 상황을 통해 브라이언의 내면에서 주인공 소녀와 이루어진 대화가 표면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대화는 (3)에서 나타난 현재의 브라이언과 과거 브라이언과의 대화이다. 브라이언은 (6)에서와 같이 ‘저라면 ~ 앓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과거 자신의 경험을 현재적 상황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을 것 같아요’라는 표현 방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화된 과거의 경험은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상호작용적 분석 방법에서는 내러티브 화자의 과거 경험이 현재적 맥락에서 어떻게 새롭게 의미화되며, 이것

이 미래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가 중요한 분석 지점으로 작용한다. 브라이언은 내러티브를 통해 과거 자신의 경험을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현재적 맥락에서 재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 지향으로 동기화하였다. 내러티브는 화자가 과거·현재·미래에 걸친 전향과 후향의 시간적 진자 운동을 통해 화자의 과거 경험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도록 돕는다. 마지막 네 번째 층위의 대화는 실제 북클럽이 이루어지고 있는 브라이언과 북클럽 구성원 간의 대화이다. 브라이언의 내러티브는 실제로 북클럽에서 청자인 다른 학생들과 교사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발화된 것이며, 따라서 (1)~(6)에 나타난 브라이언의 발화를 촉진한 실제 청자는 브라이언의 내러티브를 듣는 북클럽의 구성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브라이언의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네 층위의 대화는 서로 대치되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브라이언은 실제로는 북클럽 구성원들과 대화하고 있지만, 이는 앞서 말한 서로 다른 층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대화들과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중층적 대화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대화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시다발의 역동적인 형태로 작용하여 브라이언의 내러티브 생성을 돕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는 브라이언의 내러티브에 나타난 이러한 대화의 양상을 보여 준다.

요컨대, 상호작용적 분석법은 내러티브의 생성에 관여하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 대화 참여자의 목소리 및 관점과 함께, 과거의 경험이 현재 상황과 미래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유용하다. 최근의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언어교육 패러다임에서 주요한 연구 과제의 하나는 타인과의 언어적 소통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개인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Lewis & Velle, 2009). 상호작용적 분석법은 내러티브 생성에 관여하는 타인의 목소리를 밝히고 대화의 다층적 양상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의 복원만이 아닌 타인들과의 교섭을 통한 사회문화적 구성물임을 알려 준다.

2 누구와의 대화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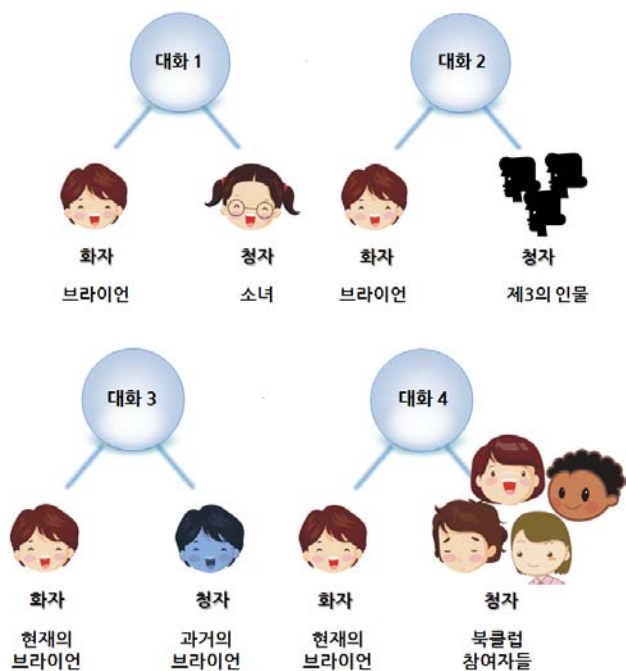


그림 4. 브라이언의 내러티브에 나타난 중층적 대화 양상

따라서 상호작용적 분석법은 다음과 같은 국어교육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먼저, 학생의 언어 속에 혼용되어 있는 ‘중요한 타인들(significant others)’의 목소리를 분석해냄으로써 국어교육 주체들의 역할을 질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재 학생, 부진 학생 또는 다문화 배경 학생 등에 대한 교사의 언어, 학부모의 언어, 동료의 언어가 해당 학생의 정체성 고착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의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복클럽 토의 참여자의 목소리와 대화 양상을 분석하여 타인의 언어가 해당 학생의 언어 능력 신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심층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

적으로 이와 같은 분석은 타인의 언어가 관여하는 양상을 구체화시켜 ‘그렇다면 활동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국어교육적 중재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IV. 맺음말

본 연구는 국어교육 질적 연구의 체계화의 일환으로 내러티브 분석의 방법을 살펴보고 그것의 실제적 적용 사례에 대해 논의하였다. 질적 연구의 분석이 연구자의 경험에 주로 의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지나친 주관성은 학문 공동체 내에서 질적 연구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질적 연구의 방법이자 방법론으로 활용되는 내러티브 분석 방법의 유형화와 그 실제적 활용을 살펴보았다.

국어교육학은 이론화와 함께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실행적 학문이다. 따라서 국어교육에서 내러티브 탐구와 같은 질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한다는 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로 구성된 국어교육 실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는 ‘귀’를 열어 놓는 일의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거대 담론으로서의 국어교육 이론을 실제적 양상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일은 실행적 학문으로서 국어교육이 가지는 숙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천 주체들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내러티브 연구가 국어교육 연구에서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분석의 한 유형인 상호작용적 분석법을 통해 타인과의 소통을 추구하는 복클럽 내러티브 문식 활동이 학습자 정체성 구성에 의미 있는 기제로 작용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작용적 분석법과 같은 다양한 분석 방법이 국어교육 질적 연구에서 체계화되어 적절하게 활용될 경우, 국어교육 연구 현상을 보다 다층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

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어 수행 능력을 이해하는 학문적 패러다임이 개인의 인지 중심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구성주의로, 그리고 최근에는 역사, 권력, 문화를 고려한 사회문화적 구성주의로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지식정보화 사회의 심화로 수많은 언어문화적 ‘다름들’과 조우하게 되는 환경, 그리고 그러한 다름들의 긍정적 수용을 통한 성장에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원성에 대한 인정,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 개방성에 대한 지향 등을 핵심으로 한 포스트모더니즘 담론들이 최근 인문 및 사회과학 전반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 세계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사회문화적 삶과 경험을 담고 있는 내러티브는 ‘내’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소중한 증거이다.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국어 교육 실천 주체인 학생과 교사의 성장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수집하여 듣는 것은 그들의 성장과 국어교육학의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내러티브 분석법이 국어교육의 학문적 논리에 타당하고 전용 가능한 방법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러티브 분석법의 다양화와 체계화는 궁극적으로 국어교육 실천의 다채로운 국면을 연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데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14. 5. 5. 투고되었으며, 2014. 5. 5. 심사가 시작되어 2014. 5. 24.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김대행(2005), 「수행적 이론의 연구를 위하여」, 『국어교육학연구』 22, 5-9, 국어교육학회.
- 노명완 · 신현재 · 박인기 · 김창원 · 최영환 · 원진숙 · 유동엽 · 김은성(2012), 『국어교육학개론(제4판)』, 도서출판 삼지원.
- 박민정(2012), 「교육과정 실행경험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내러티브 분석」, 『교육과정연구』 30, 247-270, 한국교육과정학회.
- 박인기(2005), 「국어교육학 연구의 방향: 재개념화 그리고 가로지르기」, 『국어교육학연구』 22, 97-123, 국어교육학회.
- 박혜영(2013),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내러티브적 의미 구성: 미국 이주 한국 청소년의 북클럽 내러티브 탐구』, 도서출판 아르빗.
- 양호환(1998), 「내러티브의 특성과 역사학습에의 활용」, 『사회과학교육』 2, 서울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 엄 훈(2004), 「교실 수업 공개와 참관을 통한 두 국어 교사의 변화와 성장의 체험」, 『국어교육학연구』 19, 359-418, 국어교육학회.
- 임병권 외 역(1997), 『이야기하기의 이론: 소설과 영화의 문화 기호학』, 한나래.
- 서 혁(2013), 「국어교육학 연구의 확장과 연구방법론」, 『선청어문』 40, 39-27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서현석(2002), 「국어교육에서 질적 연구방법의 의미」, 『한국어문교육』 11,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연구소.
- 정재찬(2001), 「국어교육 현상에 관한 교육사회학적 접근—질적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12, 51-91, 국어교육학회.
- _____(2006), 「국어 수업 비평론」, 『국어교육학연구』 25, 389-420, 국어교육학회.
- 정현선(1998), 「인문학으로서의 국어국문학/사회과학으로서의 국어교육연구」 5, 253-273, 『국어교육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정혜승(2002), 『국어과 교육과정 실행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조용환(1999), 「질적 기술, 분석, 해석」, 『교육인류학연구』 2, 27-63, 한국교육인류학회.
- 조지형(1998), 「언어로의 전환'과 새로운 지성사」, 안병직 외 『오늘날의 역사학』, 한겨레 신문사.
- 최인자(2006), 「국어과 교사의 실천적 지식 성찰을 위한 방법론적 탐색: 성찰적 내러티브 탐구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1, 77-111, 한국문학교육학회.
- 한승희(1997),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교육적 의미」, 『교육과정연구』 15(1), 400-423, 한국교육과정학회.
- _____(2000), 「교육학의 새로운 지표로서 내러티브」, 『교육학연구』 38(4), 259-282, 한국교육학회.
- 한철우 외(2012), 『국어교육연구방법론』, 도서출판 박이정.
- Bakhtin, M. M.(1981), *The Dialogic imagination*,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Bakhtin, M. (1986). *Speech genres & other late essays* (C. Emerson, M. Holquist, eds., & V. W. McGee, Trans.) Austin: University of Texas.
- Bamberg, M. (1997), "Oral versions of personal experience: Three decades of narrative analysis," *Journal of Narrative and Life History* 7, 177-184.
- _____ (2004), "Talk, small stories, and adolescent identities," *Human Development* 47, 331-353.
- Bruner, J. S. (1996), *The Culture of educa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1990),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19(5), 2-14.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California: Jossey-Bass.
- Connelly, F. M. & Clandinin, D. J. (1998), *Teachers as curriculum planners: Narratives of experience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Cortazzi, M. (2001), "Narrative analysis in ethnography," In P. Akinson, A. Coffey, S. Delamont, J. Lofland, & L. Lofland (eds.), *Handbook of ethnography* (pp. 384-394), Thousand Oaks, CA: Sate Publishers.
- Dewey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Collier Books.
- Eisner, E. W. (1997), *The enlightened eyes: Qualitative inquiry and the enhancement of educational practice*, New York: Macmillan.
- Gee, J. P. (2000), *Discourse analysis: Theory and method*, New York: Routledge.
- Hermans, H. J. & Kempen, H. J. (1993), *The dialogical self: meaning as movement*, San Diego, California: Academic Press.
- Huberman, A. & Miles, M. (1994),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Methods," In N. Denzin and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428-444, London: Sage.
- Labov, W. & Waletzky, J. (1997), "Narrative analysis: Oral versions of eprsonal experience," *Journal of Narrative and Life History* 7(1-4), 3-38 (Origianl work published 1967).
- Lewis, C. & Velle, D. (2009), "Literacy and identity," In L. Christenbury, R. Bomer, & P. Smagorinsky, *Handbook of adolescent literacy research* (pp. 307-322), NY: The Guilford Press.
- McAdams, D., Josselson, R., & Lieblich, A. (2006), "Introduction," In D. McAdams, R. Josselson, & A. Lieblich, *Identity and Story: Creating self in narrative* (pp. 3-11),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ishler, E. G. (1995), "Models of narrative analysis: A typology," *Journal of Narrative and Life History* 5, 87-123.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Polkinghorne (1988),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_____ (1995), "Narrative configuration in qualitative analysis," In Hatch J. A. & Wisniewski R. (eds.), *Life History and Narrative*, London: The Falmer Press.
- Riessman, C. K. & Speedy, J. (2007), "Narrative inquiry in the Psychotherapy Professions: A Critical Review," In D. J. Clandinin (eds.), *Handbook of Narrative*

- Inquiry*, Thousand Oaks, CA: Sage.
- Riessman, C. K.(2008), *Narrative methods for the human sciences*, Thousand Oaks, CA: Sage.
- Walcott, H.(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London: Sage.

국어교육 질적 연구에서의 내러티브 분석 방법 탐구

박혜영

국어교육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연구의 내용을 정교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 영역을 탐색하기 위한 전초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국어교육의 학문적 지평 확장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국어교육 질적 연구 방법론의 체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러티브 분석 유형을 알아보고 그의 실제적 적용 방안을 상호작용적 내러티브 분석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국어교육 실천 주체인 학생과 교사의 성장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수집하여 듣는 것은 그들의 성장과 국어교육학의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내러티브 분석법이 국어교육의 학문적 논리에 타당하고 전용 가능한 방법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내러티브 분석법의 다양화와 체계화는 궁극적으로 국어교육 실천의 다채로운 국면을 연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데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질적 연구, 내러티브, 내러티브 분석, 내러티브 탐구, 목소리, 대화, 주제 중심 분석법, 상호작용적 분석법

ABSTRACT

Inquiry of Narrative Analysis in Korean Education

Hye Young Park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systematic ways of the qualitative research to scrutinize times and places where Korean language education occurs.

Based on the Riessman's approach of narrative analysis, a various typologic ways of narrative analysis were introduced as follows: 1) Thematic analysis; 2) Systematic analysis; 3) Interactive analysis and others. The interactive analysis of narratives was demonstrated by using an example of data systematically analyzed in a previous research.

As a result, it reveal that the systematic analysis of narratives or narrative analysis allows in-depth inquiry to see how discourses of significant others are transacted and negotiated in the sociocultural process of narrative construction as a student's literacy practices as well as identity construction.

KEYWORDS narrative, narrative analysis, narrative inquiry, qualitative research, voice, interactive analysis